

U7+ 세계 대학 총장 회담 연합에 대해

U7+ 총장 회담은 U7+ 세계 대학 연합의 연례회로서, 이는 G7 국가 정부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세계적인 문제들에 맞서 대학이 연계하여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해보고자 하는 최초의 다국적 대학 총장 연합체이다.

장소: 노스웨스턴 대학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U7+ 총장 회담을 주최하게 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안전 의식과 여행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노스웨스턴은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 조지타운대학 (Georgetown University) 그리고 UC 버클리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과 협력하여 주최할 것이다.

시간 : 2020 년 11 월 23-24 일

행사 안건: 20 개국의 나라들과 100 명이 넘는 대학총장들과 지도자들이 온라인으로 이틀에 걸쳐 U7+ 첫 회담에서 시작된 시급한 세계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회담은 세대간의 공정성을 장려할 수 있는 대학들의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며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차세대의 권익과 권리를 고려해서 강구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세계 청소년들의 희망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학 지도자들은 G7 국가 기관들과 다른 정부간 기관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다. 총장 회담에서 나누어질 주제들은 청소년 정신건강, 코로나가 청소년들의 취업과 유학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적용 등이 있다. 또한 이 회담에는 전세계로부터 청년들이 참여하여 고등교육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나눌 것이며 최종적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장려하는 새롭고 보완된 헌신책을 제시하며 마무리될 것이다.

참가자: 2019 년 7 월 파리정치대학 (시앙스 포)에서 열린 첫 회담에는 47 개의 대학교가 전세계의 2 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표하여 참여했다. 올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는 20 여개국으로부터 100 명 이상의 대학 총장들과 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Argentina (아르헨티나)
-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 Canada (캐나다)
- France(프랑스)
- Germany(독일)
- Ghana(가나)

- India(인도)
- Italy(이탈리아)
- Ivory Coast (코트디부아르)
- Japan(일본)
- Kenya(케냐)
- Mexico (멕시코)
- Morocco(모로코)
- Nigeria(나이지리아)
- Senegal(세네갈)
- Singapore(싱가포르)
- South Africa(남아공)
- South Korea(한국)
- United Kingdom(영국)
- United States (미국)

U7+ 연합의 창시 원칙과 책무

2019년 7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주재 아래 파리정치대학 주최로 열린 제 1회 U7+회담에서 2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47개교 대학 총장들은 만장일치로 6가지 원칙을 세우고 5가지 중대한 세계적인 문제들을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첫 회담 이후로 U7+연합 회원들은 착수 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자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193개의 나라들이 수용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이루는 데에 작지만 아주 중요한 공동 작업의 단계를 밟고 있다.

예를 들어, 21개교 U7+ 대학 지도자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연구, 발표에 협력하고 있다. 토론토 대학교와 에든버러 대학교가 주도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대학교들이 각 교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려 하고 있고 이를 감찰하는 조사기록을 하고 있다. 또 다른 U7+ 위원회에서는 12개교 이상의 대학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과 테크놀로지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16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논문을 올해 출간했다. 또한 U7+ 대학들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이고, 번영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사회 조직, 비정부 기구, 시민, 다국적 기관, 그 외 다른 세계적인 지도자들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대해

1851년에 설립된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미국 상위 10위 안에 드는 명문대이며 75개국 이상에서 온 8,000명 이상의 학부생과 13,0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다. 50여개의 연구 센터가 시카고, 에반스턴, 카타르 도하 세 곳의 캠퍼스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마이애미의 사무실에 위치해 있다.

노스웨스턴은 35개여국의 100개교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분야간 교류가 활발한 학문 공동체 조성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U7+ 연합에 대해

U7+ 연합은 대학 총장들의 국제 연합으로서 시급한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며 대학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전념한다. 대학들이 다원적 안전에 대하여 세계적인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조성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연합은 U7+의 대학 총장들이 모두 각 대학교 고유의 시민적, 사회적인 책임을 살펴보고 가장 긴급한 현지,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각 대학을 대표하여 서약한다.

도움될 만한 링크

2020 U7+ 총장회담 웹사이트 <https://www.northwestern.edu/u7summit/>

2020 U7+ 총장회담 기자회견 자료집 (링크 곧 제공될 예정임)

U7+ 연합 웹사이트 <https://www.u7alliance.org/>

노스웨스턴 대학 기자회견 자료집 <https://news.northwestern.edu/for-journalists/contact-us>